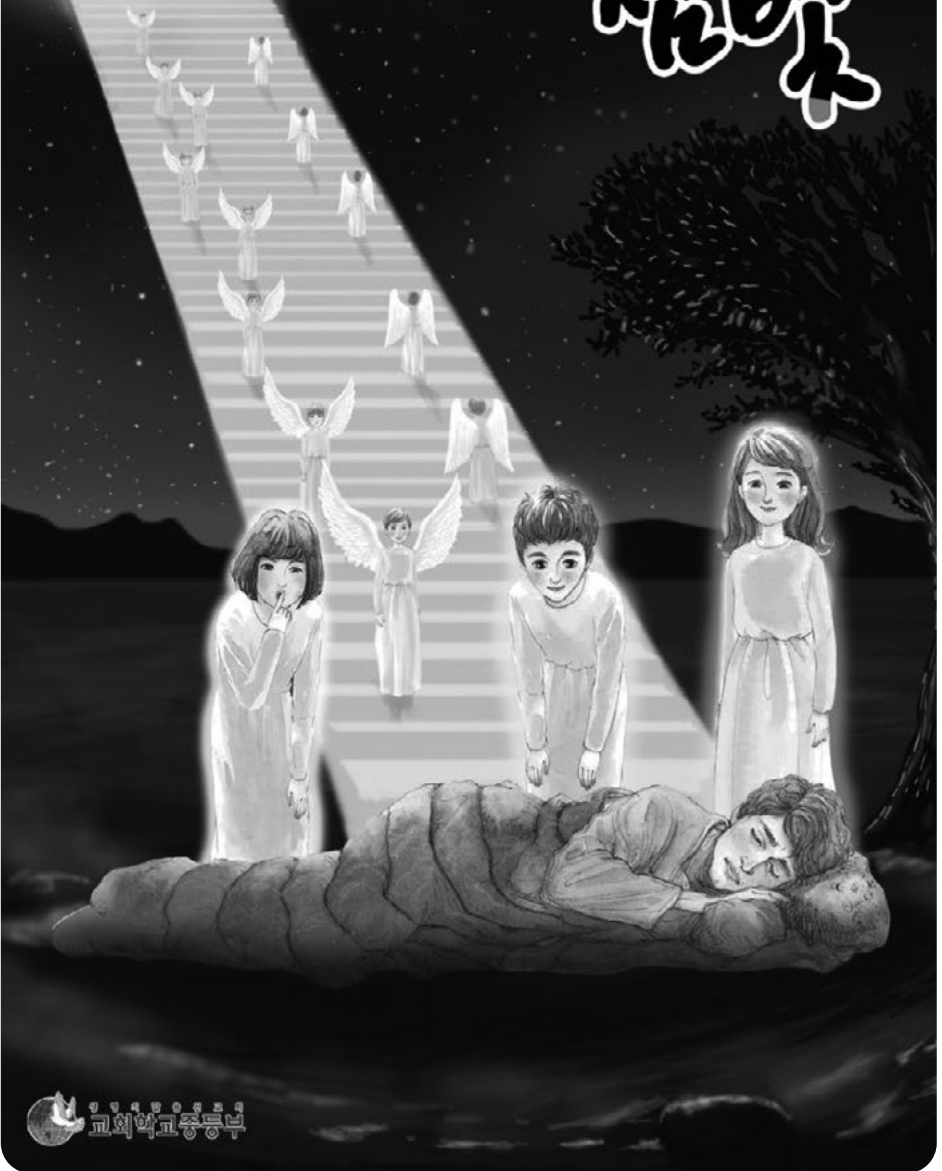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4권

2023년 참빛 중등부 제 4권

참빛



10

2023 10월의 주요 일정을 기록하고 계획해 보세요.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1	2	3 개천절	4
8	9 한글날	10	11
15	16	17	18
22	23	24	25
29	30	31	1

10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메모 MEMO

5

6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2

3

4

11

2023 11월의 주요 일정을 기록하고 계획해 보세요.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29

월 MONDAY

30

화 TUESDAY

31

수 WEDNESDAY

1

5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11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2

금 FRIDAY

3

토 SATURDAY

4

메모 MEMO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1

2

12

2023 12월의 주요 일정을 기록하고 계획해 보세요.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29	30	1	2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
31			

12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3

금 FRIDAY

1

토 SATURDAY

2

메모 MEMO

7

8

9

14

15

16

21

22 성탄절

23

28

29

30

차례 Table of Contents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40	10월 4일	참된 예배	12
41	10월 11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0
42	10월 18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28

성도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43	10월 25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야곱	38
44	11월 1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46
45	11월 8일	요셉의 시련과 존귀	54
46	11월 15일	악을 선으로 갚은 요셉	62
47	11월 22일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이겨낸 욥	70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요 1:9)

예수님의 비유

- | | | | |
|----|---------|-------------|-----|
| 48 | 11월 29일 | 씨 뿌리는 비유 | 80 |
| 49 | 12월 6일 | 돌아온 탕자 | 88 |
| 50 | 12월 13일 |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 96 |
| 51 | 12월 20일 | 두 아들의 비유 | 104 |
| 52 | 12월 27일 | 크리스마스 | 112 |
| 53 | 12월 31일 | 달란트의 비유 | 112 |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기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편집 문서선교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305번길 37(관양동) 연락처 070-7121-1280 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 (생명의말씀선교회) school.jbch.org (교회학교)

〈참빛〉에 관한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교회학교 홈페이지 \(school.jbch.org\)](http://교회학교 홈페이지 (school.jbch.org)) → [공과](#) → [참빛 건의사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40

참된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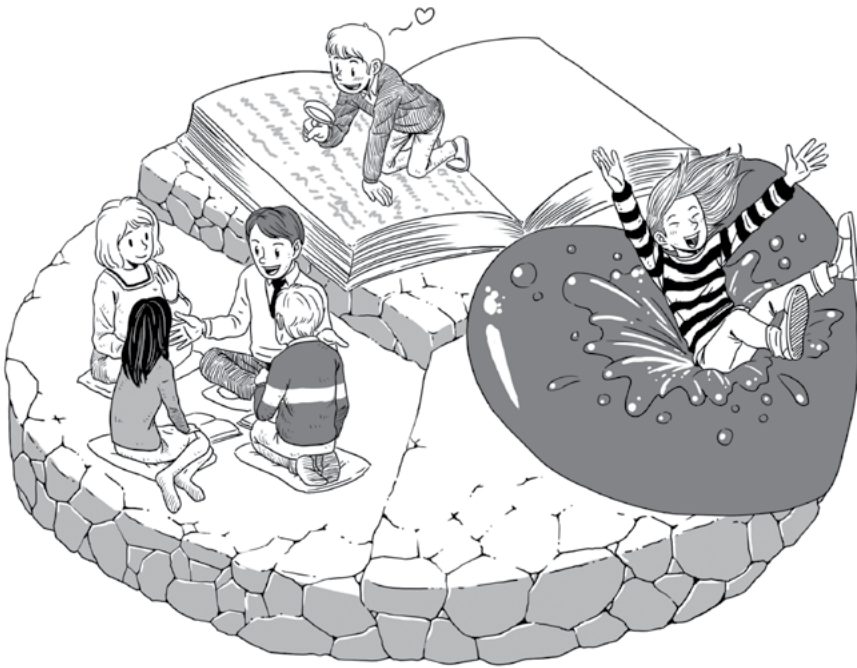
요 4:19~24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118장 (내 입술로)

오늘 배울



1.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를 압니다.
2.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
 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자가 신령
 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요 4:21~24)



을 이해하기

많은 사람이 예배를 설교, 성가대의 찬양, 암송 등을 포함하는 교회의 주일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 의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배’란 어떤 높은 대상에게 앞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예배에 대해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in spirit)과 진정(in truth)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고귀한 활동은 바로 이 예배일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상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혹은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말씀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에 항상 빛 가운데 행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Ro 12:1)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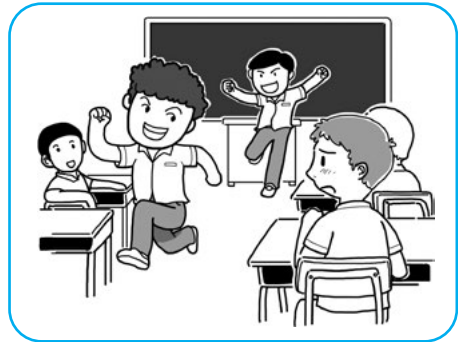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우리는 때로 교회당 안(內)과 밖(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에서와 밖에서의 나의 행동을 적어보고, 다른 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당 안:



교회당 밖:

2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in spirit=성령)과 진정(in truth=진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6:13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3 로마서 1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적어 보세요.

4 생활 가운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체 부위별로 생각해 보며 적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자. (하루에 성경 세 장 읽기...)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요 4:23

의

요 4:24

화

롬 12:1

↑

롬 12:2

↓

딤후 3:5

↓

히 13:16

↓

벧전 2:5



맑은 물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이 안 보여 처음에 가는 사람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아직 바다 한 복판에 있는 줄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도상으로는 분명히 아마존 하구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언덕이 안 보였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그 배의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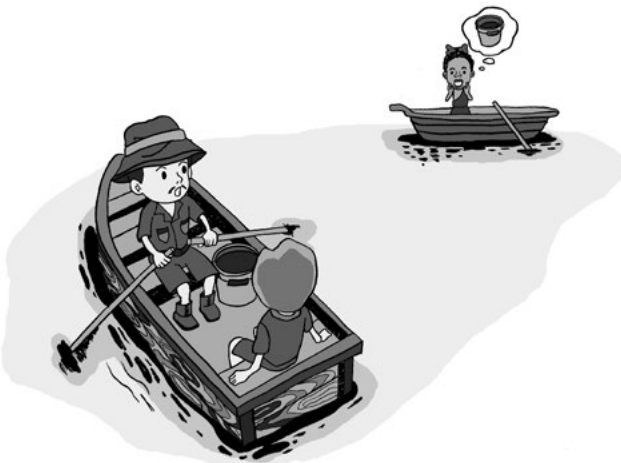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어느 쪽이오.”

저쪽에서 고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소.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시오.”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 55:1~3)



질문 있어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많이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까?

일단,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같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지, 혹은 악하게 살았든지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의 형벌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계 20:12~13).

예수님께서도, 더 많은 말씀이 전해진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0:10~15).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불의한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나 특별히 더 형벌하실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견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벧후 2:9~10)

이는 같은 지옥 형벌을 받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받을 형벌이 다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형벌의 차이를 보이실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